

광주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거점으로 거듭난다

과기정통부, 2027년까지 광주서 딥테크 창업·사업화 거점 마련 컨소시엄 구성...기업 발굴·상용화·해외 진출 지원 플랫폼 구축

광주시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창업 및 사업화 거점으로 거듭난다. 반도체 관련 창업 기업 등을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 내는 게 최종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주와 대전 등 '딥테크 스케일업 벨트 육성사업' 과제 2건을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광주와 대전에 각각 지능형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분야 딥테크(선도기술) 창업 및 사업화 거점을 마련한다. 이 사업은 원천기술을 가진 거점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벤처 및 중소·중견기업, 기

술지주회사 등 창업 및 사업화 전문회사, 특허법인, 지방자치단체, 연구개발지원단, 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 발굴과 상용화, 해외 진출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과제 공모에는 12개 컨소시엄이 지원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전 기획 수행을 거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본부) ▲양자컴퓨팅 양자전환(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2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컨소시엄은 딥테크에 맞는 기술사업화 목표와 전략, 세부 과제를 자율 기획하고 벨리의 영역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벨리 운영 책임자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참여자를 유연하게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넓힌 점이 이번 사업의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도 전략기술 분야 컨소시엄 한 곳을 추가 선정해 2028년까지 12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기술 클러스터에서 배출된 창업기업을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내야 한다는 필요에 직면했다"며 "이번 공모사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사업화부터 스케일업 전 과정을 종합 패키지로 지원하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공보육 강화

우수 민간·가정어린이집 9곳 추가 지정...총 95곳 운영

광주시는 7일 "공보육 강화를 위해 민간어린이집 4곳·가정어린이집 5곳 등 공공형 어린이집 9곳을 추가 지정하고, 총 95곳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3년간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매년 37억원을 투입해 한 곳당 연평균 3400만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신규·재지정 시 급식·보육 물품 구입 등을 위한 환경개선비 평균 200만원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참여 희망 어린이집은 보육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치구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 기준은 어린이집 평가상대 준수 및 영유아보육법령·지침을 준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환경, 보육서비스, 보육교직원 운영관리 등 6개 항목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순으로 지정한다. 단, 행정처분 또는 처벌이력이 있거나, 타 시설 설치·운영·재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된다.

김선자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며 "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전복 먹고 열대야 이겨내요" 전남 전복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촉행사가 7일 오후 이마트 광주점에서 열리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및 전북산업연합회 관계자들이 전남산 전복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출장비 과다 지급...광주 사회복지시설 적발

광주시 감사위, 시설 3곳 12건

광주시 감사에서 직원 출장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후원금 사용 내용을 수년간 공개하지 않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회복지시설들이 적발됐다.

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5개 자치구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시설 3곳에서 부적절 행정 행위 12건을 적발하고, 주의·시정 27건 등 행정처분 조치를 각 시설에 요구했다.

광주 동구 한 아동양육시설은 공용차량·식사를 제공받아 세미나에 참석한 시설장·직원들에게 4차

례에 걸쳐 식비 등 출장 여비 26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남구에 있는 한 아동양육시설은 후원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수익금 사용 내용을 시설 누리집에 게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2년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2021년 한 차례 공개한 내용에는 후원자 성명·지원 대상자 실명 등을 익명 처리하지 않고 게시해 사회복지시설 규격을 위반했다.

북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식자재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연간 실적행액의 추정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방계약법을 지키지 않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수산종자 방류 효과...어족자원 최대 2.5배 증가

우량종자 5억4000만 마리 방류...올해 14개 품종 2400마리 계획

전남도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수산종자 방류에 의해 서남해안의 어족자원이 풍부해지고 어민들의 생산금액도 최대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지난 1988년 수산종자 방류를 시작해 현재까지 410억원을 들여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우량종자 5억 4000만 마리를 방류한 바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그동안 방류한 종자에 대해 2007년부터 해역별·어종별 방류 효과 조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 방류 전보다 생산금액이 넓치 2.61배, 전복 2.97배, 대하 1.38배, 해삼 1.45배, 참조기 1.47배, 감성돔 2.07배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해온 수산종자 방류사업이 실제 생산금액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올해도 방류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총 42억원을 들여 14개 연안 시·군 해수면에 감성돔, 대하, 꽃게, 전복, 해삼 등 14개 품종, 240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또 방류한 종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금지 제장 준수 등 어업인 지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우량 품종을 선정해 적정 시기에 방류하는 등 수산종자 방류사업 계속 확대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경영난' 한우농가 지원방안 논의

16개 축협 조합장과 간담회

전남도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한우농가 의견 수렴을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16개 지역 축협 조합장과 박종택 농협 전남본부장 등 22명과 간담회를 열고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축산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료가격은 오른 반면 산지 한우가격은 하락한 상황에서 한우고기 할인 판매 등 소비 촉진에 나서 감사하다"며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지역축협이 축산농가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축협 조합장들은 전남도의 소규모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 정책에 고마움을 표했다.

또 일부 축협 조합장은 경영난에 처한 한우농가를 위해 녹색축산육성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융자금 상환 기간을 1년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다. 농가 사료구매자금에 대한 무이자 지원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을 건의하는 조합장도 있었다.

김영록 지사는 "녹색축산육성기금 상환기간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자금 이자율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문화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